

## 단칸방의 추억

이민 와서 처음으로 조그만 집 한채를 얼마 전에 샀다. 은행용자를 받아서 산 집이니 정확하게는 내 집이라 할 수 없고 은행 집인 셈이다. 하지만 IMF 때 내 집이며 건물들을 모두 잃어버린 이후 셋방살이 15년만에, 이민온지 13년만에 내 집이라고 처음 산 것이니 감회가 새롭다. 미국에서 내 집을 한채 갖는다는 것은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내 집이라는 의미는 생활의 만족과 여유로운 사치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언젠가 집값이 오르면 고마운 일이지만 오르지 않아도 즐기며 산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나는 한국에서 살 때나 미국에서 살 때나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낸다. 일도 그렇고 취미 생활도 밖에서 보낸다. 반면에 집을 가꾸거나 장식하는데는 전혀 소질도 없고 별 관심도 없다.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고 돌보는 것도 별로다. 하물며 집 수리를 한다거나 집안 살림살이가 고장이 나면 사람을 부르거나, 아예 새것으로 바꿔 버린다. 그렇게 몇년을 살다가 지겨우면 다른 새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 나의 집에 대한 통념이었다. 나는 이번에 집을 사면서 내 아내가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인지 정말 처음 알았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살 때 모델 하우스에 가서 분양을 받거나, 지역과 가격만 맞으면 나머지는 아내가 모두 알아서 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결정하기 까지 조금 과장해서 매물 백여채는 검토했으니 나는 거의 초죽음이 되었다. 하루 일과가 퇴근하면 저녁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아내와 함께 인터넷에 매물로 나온 집들은 모조리 검토해야 한다. 그 중에 마음이 드는 집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먼저 가서 외관을 봐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들면 에이전트를 통해 집 내부를 보는 것이다. 대부분이 사진보다 실망하기 일쑤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내의 조건은 까다로우니 쉽게 결정될 리가 없다. 그러다가 좋은 집도 몇채 놓치고, 계약에 들어간 집 몇채는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깨어지기를 몇번 반복하다 보니 일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입한 집은 인터넷에 올라온지 하루만에 가서 보고는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2 주일만에 크로징하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행히 아내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조건을 모두 갖춘 동시에 나의 필요조건을 충족한 집이니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다. 이 모든 과정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내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처음 이민왔을 때 단칸방 아파트에서 살았다. IMF 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자, 아내는 자식들 교육 (딸아이 둘 모두 예술학교에 다니고 막내 아들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였음.)을 한국에서는 도저히 시킬 수 없음을 알고 무작정 보따리를 싸서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먼저 온 것이다. 그 때 아내가 구한 아파트가 이 단칸방 원룸이었다. 나는 일년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9.11 사태가 난 것이다. 아내는 도저히 떨어져 살 수 없으니 무조건 미국에 들어와 같이 살자는 것이다. 나는 다 늙은 나이에 무대책, 무계획 상태로 이민 아닌 이민을 온 것이다. 그 단칸방에서 우리 가족 5 명이 6 년을 살았다. 그 때 우리 아이들은 그 곳에서 가난을 알았다. 거실도 아닌 거실에서 다 큰 아이들 세명이 6 년을 뒤엉켜서 그렇게 살았다. 화장실도 하나 뿐이라 아침이면 전쟁이다. 자동차도 한대 뿐이었으니 우리 아이들은 어지간한 거리나 한,두시간 정도는 걸어 다녔다. 부모는 흑인 동네 가게로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 오기 일쑤였다. 그러니 그 단칸방에서 저희들끼리 밥해 먹고 학교를 다닌 것이다. 주위의 따가운 눈총도 많았을 것이고 학교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였을 것이다. 먹고 살기에 지친 부모에게 전혀 내색조차 못하였으니 가슴에 맺힌 영어리는 또한 얼마나 많았을까. 체류 신분 문제며, 먹고 사는 생활 문제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었다. 그런 6 년이라는 세월을 그 단칸방에서 살았다. 6 년 뒤에는 방이 3 개, 화장실이 2 개인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마치 대궐 같았다. 그 때도 무리하면 어찌어찌 내 집 한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 학비가 한창 들어갈 나이니 내 집 마련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새로운 아파트에서 또 7 년을 살았다. 다행히 아이들 학자금 융자나 빚은 지금까지 없다.

---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에게 약속한 <아내의 집>을 사 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야 내 집을 마련했건만, 막상 내 집에는 자식들이 모두 떠나간 뒤다. 큰 딸은 한국으로 시집가서 일년만에 자기들 집을 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둘째 딸은 맨하탄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이번 9 월이면 영국으로 떠난다. 막내 아들은 다음 달이면 캄보디아로 장기 선교를 떠난다. 이제는 각자 방도 있고 넓은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재미있게 살 수도 있으련만, 모두가 떠나간 것이다. 이 집은 우리 부부 둘만이 살기에는 넓은 집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언제라도 돌아오면 자기 방이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위안을 삼고자 한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못난 아버를 만나 이 먼 미국 땅까지 와서 못할 고생만 시켜 정말 미안하구나. 이 애비는 결코 그 단칸방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단다. 너희도 그 단칸방의 가난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가족과 형제 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